

## [ 종합·해설 ]

## 4·9 총선 현장

## 장병완 '2013 광주 U대회' 유치 쇄신



○…장병완 광주 북구갑 예비후보는 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의 지속 가능한 성장, 일자리 창출과 인재 육성 네트워크 구축 등 4월 총선에 대비한 주요 정책 공약을 발표. 장 후보는 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있는 능력자가 필요한 때”라며 “국회에 입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등 지역 전략사업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

## 이용섭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실천”



○…이용섭 광주 광산구을 예비후보는 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권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를 실천하겠다”고 약속. 이 후보는 “지금은 공약(空約) 대신 지킬 수 있는 공약(公約)을 정해 목표·이행기 간·재원 조달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

## 학계·문화예술계 인사 100명 “지방문 지지”



○…류재현 전남대 교수 등 광주·전남지역 학계·문화예술계 인사 100명은 지난 3일 지방문 의원(광주 남구) 지지를 선언하고 지 의원의 공천을 촉구.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지 의원은 우수한 의정 활동 능력을 갖추고 지역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갈등을 조절하는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해왔다”고 설명.

## 무안·신안 지방의원 16명 “김홍업 지지”



○…무안·신안 지역 통합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이곳에 출마한 김홍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 전남도의회 김석원(무안1)·김철주(무안2) 의원은 비록 광역·기초의원 16명은 4일 오전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후보는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당선됐으며, 지역 숙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인물임이 확인됐다”고 주장.

## 박주선, 신협 찾아 현안 청취 ‘민생 탐방’



○…박주선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4일 동구엔체빌딩과 신협 등 지역 유관 기관을 방문, 지역 현안을 청취하며 민생 탐방에 주력하는 모습. 박 후보는 “동구 지역 교육·문화·예술 분야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려면 국

정수행과 의정활동 경험이 풍부고 중량감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며 지지를 당부.

## 김영룡 ‘서구을 선거사무소’ 개소식



○…김영룡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는 4일 서구 풍암동 유수빌딩 7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총선 승리를 다짐.

김 후보는 개소식에서 “광주 서구을 지역 최대 애물단지인 공군 탄약고를 반드시 무안공항 옆으로 이전시키겠다”며 “국방부 차관 재직시 무안공항 옆 깊은 산에 유류부지 150만평을 탄약고 이전 부지로 확보해 놓았다”고 폭력.

## 이병화 “잘 사는 서구 만들 것” 선거전 돌입



○…이병화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는 4일 광주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

이 후보는 이날 “광주시 정무부시장을 지내면서 380여개의 기업과 2조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낸 경험을 갖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 입성, 주민들이 잘 사는 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지를 호소.

## 김승남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줄일 것”



○…김승남 광주 광산구을 예비후보는 4일 신가동 풍영·진만·신창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1987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 후보는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보육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공교육을 더욱 내실화시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겠다”며 교육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폭력.

## 정재훈 ‘사랑의 식당’서 점심 봉사활동



○…정재훈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지난 3일 광주직업소년원이 운영하는 ‘사랑의 식당’을 찾아, 400여명의 노인들에게 점심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

동아병원 원장인 정 후보는 “노인 보건의료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남구에 지어지는 ‘빛고을 실버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

## 임홍채, 복지관 등 찾아 바닥여론 수렴



○…임홍채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는 4일 서구지역 동사무소와 복지관 등을 방문, 민원인들을 만나 바닥여론을 수렴.

임 후보는 “서구가 광주의 중심”이라고 역설하고 “교육·문화·행정·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광복할 만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경험과 패기, 활동성을 심분 발휘하겠다”고 강조.

## 전남 수산인 지회장 20여명 “이영호 지지”



○…전남지역 수산인 6천명으로 구성된 한국수산업경영인전남도연합회 소속 지회장 20여명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영호 의원(해남·진도·완도)의 지지를 선언.

이들은 ‘4·9총선에 대한 우리 입장을’ 이란 선언문을 통해 “이 의원은 혼연 국회의원 중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 연장 등 어민들을 위해 노력해 온 유일한 의원”이라며 “어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 의원의 당선을 위해 전 어민이 뛸듯 둥치기로 했다”고 설명.

## 민형배, 하남산단 임직원들과 ‘만남의 시간’



○…민형배 광주 광산구을 예비후보는 4일 하남산단내 날경ENG, 화신 산업 등 중소기업을 찾아 임직원들과 만남의 기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

민 후보는 “대기업 협력업체의 경우 납품과 함께 수익률 하향조정되면서 자금난을 비롯,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 허승완, 남구 발전협 참석 지역민심 수렴



○…허승완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지난 3일 열린 남구지역발전협의회에 참석, 지역민심을 수렴하는 등 얼굴 알리기 행보를 본격화.

허 후보는 이날 “보성군수를 지내며 녹차를 세계 명품으로 발전시킨 혁신 마인드와 강력한 리더십으로 남구를 문화 수도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며 지지를 호소.

## 서갑성, 재래시장 상인들 애로사항 청취



○…서갑성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4일 지역 재래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만남의 기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

서 후보는 이날 “경제가 살아나 잘 살게 되는 것이 시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입안,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

## 이승재 “남구에 호수공원·전통 한옥촌 조성”



○…이승재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4일 남구의 지역별 발전 방안을 담은 공약을 발표.

이 후보는 이날 “효천·송암동을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다”면서 “호수 공원과 전통 한옥촌을 조성해 사람·공간·환경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도록 호수공원과 전통한옥촌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해남=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孫·鄭·康 ‘깊어가는 고민’

〈학규〉 〈동영〉 〈금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전통일부 장관, 강금실 최고위원 등의 지역구 출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내 공천심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 내외에서 이를 스타급 인사들에 대한 출마 여부가 있어 고민하고 있지만 막판 한 지역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손 대표 측근들 사이에서는 지지도가 높은 수도권과 호남권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는 손 대표의 전국 지원유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비례대표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다소 우세한 상황이

## 민주 빅 3, 수도권 출마 전략 말만 무성

## 鄭 “당명에 띠를 것” 관악을 출마설 진화

## 孫 출마 지역 확정 못해…康 ‘침묵 일관’

때문에 당 내외에

서는 정 전 장관이 동작과 종로를 겸토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당선 가능성은 약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주자하고 있다는 것이 정 전 장관 측 인사들의 전언이다.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정 전 장관이 서울 출마를 이야기해서 명분을 얻은 뒤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후보자들의 반발 때문에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서울 출마의 길을 접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강 전 장관 측은 “당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한 ‘공천 뇌관’ 영남 심사 돌입

## 친박계·노령·다선 의원들 불안감 고조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공천 심사의 하이라이트인 영남권 본심에 들어가면서 당이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한나라당의 정치적 빛발인 영남은 다선·고령 의원들과 박근혜 전 대표의 핵심 층근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혼연 물갈이설이 나올 때마다 ‘화약고’로 지목돼 온 지역.

일단 예산에서는 친박 핵심들이 대부분 살아남아 오히려 ‘계파간 나눠먹기’가 아니나 나는 비판이 나왔지만 “본심에선 사정이 다를 것”이라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친박계와 다선·고령 의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친이 인사들에 비해 친박 인사들의 탈락 비율이 높을 경우 친박계의 강한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상득 국회부의장이 대통령의 친형이라는 부담과 고령·다선 논란을 뚫고 공

천이 확정된 만큼 영남권 친박 중진들은 공천 탈락시 이 부의장의 케이스를 문제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천에 감동을 주는 요소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과반 의석을 달성하면서 국민감동 공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감동 공천’에 대해 “장애인 권리 등 소수 약자, 참신한 전문가, 국민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인물, 청렴하고 강직한 인물들이 많이 공천돼야 감동을 준다”면서 개혁 공천과 물갈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영남권의 협력 물갈이 비율이 30% 이상 될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이날 심사에서는 민감한 지역 분위기가 고려되면서 적지 않은 지역의 후보 내정이 보류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신축학장전업 일식요리의 명가**

**청하**

그동안 영원한 유통망에 장시간이나  
술과 함께 차운 차와 함께 즐기고  
맛과 맛을 더해 먹는 차입니다.  
제조는 청하로 선두로 모색한 고급화를 추구합니다.

**대·소연회 / 상연회 / 각종 모임 및 집회  
단체환영 / 주차장완비**

**清 河** 전주광역시 풍무로 424-1번지  
**223-7037 / 224-5002**

**No.1 재진강판**

**집합강판**

**상소대 개밥로**

**애원**

**2008년도 사원모집**

1. [Job Title]	2. [Job Title]	3. [Job Title]
4. [Job Title]	5. [Job Title]	6. [Job Title]
7. [Job Title]	8. [Job Title]	9. [Job Title]
10. [Job Title]	11. [Job Title]	12. [Job Title]
13. [Job Title]	14. [Job Title]	15. [Job Title]
16. [Job Title]	17. [Job Title]	18. [Job Title]
19. [Job Title]	20. [Job Title]	21. [Job Title]
22. [Job Title]	23. [Job Title]	24. [Job Title]
25. [Job Title]	26. [Job Title]	27. [Job Title]
28. [Job Title]	29. [Job Title]	30. [Job Title]
31. [Job Title]	32. [Job Title]	33. [Job Title]
34. [Job Title]	35. [Job Title]	36. [Job Title]
37. [Job Title]	38. [Job Title]	39. [Job Title]
40. [Job Title]	41. [Job Title]	42. [Job Title]
43. [Job Title]	44. [Job Title]	45. [Job Title]
46. [Job Title]	47. [Job Title]	48. [Job Title]
49. [Job Title]	50. [Job Title]	51. [Job Title]
52. [Job Title]	53. [Job Title]	54. [Job Title]
55. [Job Title]	56. [Job Title]	57. [Job Title]
58. [Job Title]	59. [Job Title]	60. [Job Title]
61. [Job Title]	62. [Job Title]	63. [Job Title]
64. [Job Title]	65. [Job Title]	66. [Job Title]
67. [Job Title]	68. [Job Title]	69. [Job Title]
70. [Job Title]	71. [Job Title]	72. [Job Title]
73. [Job Title]	74. [Job Title]	75. [Job Title]
76. [Job Title]	77. [Job Title]	78. [Job Title]
79. [Job Title]	80. [Job Title]	81. [Job Title]</td